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함

(토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들이 됩

성경: 롬 1:9, 15:16, 16:25

- I.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롬 15:16.
- A.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봉사였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여 얻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 — 벰전 2:5.
1. 이 제사장 봉사로 말미암아 더럽고 불결했던 많은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 롬 15:16, 16:4-5.
 2. 이 이방인들은 속된 것에서 따로 분리되어 하나님의 본성과 요소로 적셔졌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나 기질적으로 모두 거룩하게 되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 롬 6:19, 15:16.
 3.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분별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신다 — 롬 3:24, 12:2, 요 3:15.
- B.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본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죄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변화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 제물들로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어 교회생활을 하면서,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준다 — 살전 2:1-12, 행 20:17-36, 롬 1:16-17, 3:24-26, 12:1, 4-5, 13:11.
- C.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약의 봉사는 믿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제물들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다 — 계 1:5-6, 5:9-10, 벰전 2:5, 9.
1.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확대되고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부분들인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들로 드린다 — 롬 15:16.
 2.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 a.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들로 드린다 — 롬 15:16, 벰전 2:5.
 - b. 새로운 믿는 이들이 자라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이후에, 이 믿는 이들은 그들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격려받는다 — 롬 12:1.
 - c. 믿는 이들이 계속 자라서 성숙에 이를 때, 믿는 이들을 위하여 수고한 이들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로 드린다 — 골 1:28.

- D.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 전체를 포괄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이 서신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도와 자라게 하여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활동적인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롬 1:16-17, 3:24, 5:10, 8:16, 12:2, 4-5.
- E.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봉사이다. 우리의 봉사의 초점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롬 15:16, 12:4-5, 벧전 2:5, 9, 엡 4:11-12, 16.

II.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 롬 1:9하.

- A. 신약에 계시된 믿는 이들과 관련된 모든 요구,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통해 몸의 신성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 — 엡 3:2, 히 4:16, 롬 5:17, 21, 요 7:37-38, 행 6:4, 빌 1:5-6, 19-25.
- B.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같다 — 마 4:9-10, 아 1:2, 비교 시 2:11-12.
 - 1.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이들이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 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했다 — 살전 1:9.
 - a.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고 지시하며 바로잡고 조정하시되,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동기와 같은 작은 것들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이다 — 빌 1:8, 2:5, 13, 1:20.
 - b.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통제와 지시와 바로잡음 아래 삶으로, 우리가 확산하는 기쁜 소식의 분이 된다 — 살전 1:5-8, 2:10, 살후 3:5.
 - c.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야 한다. 즉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세부적인 일 가운데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지닌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 롬 8:6, 16.
 - 2. 로마서 1장 9절에서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마태복음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빌립보서 3장 3절과 누가복음 2장 37절에서 사용된 것처럼 ‘경배하며 섬기다’라는 뜻을 지닌다. 바울은 그의 복음 전파를 단지 하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섬김으로 여겼다.
 - 3.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피로 정결하게 된 양심이 필요하다. 살아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더럽혀진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 히 9:14, 10:22, 요일 1:7, 9, 행 24:16, 비교 딤후 4:7.
 - 4.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이다 — 행 5:42, 롬 1:3-4, 8:29.
 - 5.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있어야 한다 (롬 1:9).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온 존재(롬 2:29, 8:5-6, 9)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8:10, 16)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모든 것(1:9, 7:6, 8:4, 13, 12:11)이 반드시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6. 바울은 그의 혼 안에서 혼의 능력과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거듭난 영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을 섬겼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이다.
7.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서의 주제이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분별되었다. 로마서는 다섯 번째 복음서로 여겨질 수 있다 — 롬 1:1, 2:16, 16:25.
 - a. 첫 네 복음서는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 곧 육체를 입고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사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그 영으로서 그분의 제자들 안에 사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 롬 8:2, 6, 9-11, 16.
 - b. 우리에게는 다섯 번째 복음서인 로마서가 필요한데, 이 책은 그리스도에 관한 주관적인 복음서로서 우리 안에 계신 주관적인 구주를 제시한다.
 - c.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있는 죄인들을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시키셔서,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이다 — 롬 8:29, 12:1-5, 16장.
 - d. 우리 모두는 로마서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복음의 요소들과 세부 항목들을 배워야 하고, 복음의 완전한 내용을 체험해야 하며, 어떻게 복음을 공급해야 하는지 배우기 위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 — 롬 15:16.
- C.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 빌 3:3, 비교 롬 2:28-29.
 1. 육체는 우리의 타고난 온 존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 좋은 것이든 악한 것이든 타고난 것은 무엇이든지 육체이다 — 빌 3:4-6.
 2.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천연적인 출생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든 신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은 것은 모두 육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3. 우리가 거듭났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살 수 있고, 육체 안에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할 수 있으며, 우리의 타고난 자질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이 구절들에 의해 깊고도 개인적으로 만져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4.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실과 육체에 둔 우리의 신뢰와 관련하여,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께 빛 비춤을 받아, 우리가 여전히 너무나 많이 육체에 의해 살고 우리의 행실과 자질을 자랑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5.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자질이나 소질이나 능력이나 이해력을 신뢰하지 않도록,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것이 필요하다. 오직 그럴 때에야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빛 비춤을 받은 후에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 영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 빌 3:7-8.
 6. 어느 날 이것에 대한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으로 행한 모든 것을 유죄 판결할 것이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행한 것은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유죄 판결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볼 것이다.

7.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과 자질을 자랑했지만, 우리가 육체와 함께 그 자격들을 유죄 판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안에는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이다.
 8. 우리가 하나님께 빛 비춤을 받을 때만,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자질이나 능력이나 이해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참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럴 때에야 우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빛 비춤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서, 그리고 그 영에 의해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 D.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부활 생명과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부활은 영원한 원칙이다 — 민 17:8, 고전 15:10, 58, 16:10.
1. 생명 주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의 실재, 부활의 실재,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요 16:13-15, 20:22, 고전 15:45하, 엡 4:4.
 2.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민 17:8.
 3.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자신이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죽음과 관련된 것은 모두 우리에게 속하고, 생명과 관련된 것은 모두 주님께 속한다 — 고후 1:8-9, 비교 전 9:4.
 4.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갖지 못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끝나게 되어 자신이 철저히 쓸모없다는 것을 납득해야 한다 — 출 2:14-15, 3:14-15, 눅 22:32-33, 뱀전 5:5-6.
 5.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 고전 15:10, 고후 1:8-9, 12, 4:7-18.
 6. 우리가 자신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다.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이다 — 빌 3:10-11, 엡 1:22-23.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신약에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유일한 본

신약에 있는 복음의 제사장의 유일한 본은 사도 바울이다(딤후 1:16).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신약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세 단계로 제물을 드림으로써 복음의 제사장으로 일했다. 먼저,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들로 그분께 드렸다(롬 15:16). 둘째, 바울은 믿는 이들을 양육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주었다(롬 12:1). 셋째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모든 지혜로 훈계하고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서 드렸다(골 1:28-29). 그는 그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고 분투함으로써 이것을 수행하였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선전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는 봉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그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그분께 드림

로마서 15장 16절에 따르면, 바울은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로 그분께 드렸다.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은 아담 안에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이 주님을 영접할 때, 그들은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갈 때, 그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가가 된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받은 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닌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황소와 염소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제물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들을 기뻐하셨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우리의 일은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하는 일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부로 여기신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를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황소와 염소는 예표였다. 그것은 실재가 아니었다. 그 제물들의 실재는 그리스도이다. 구약의 제물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들을 기뻐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예표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아니다. 우리는 실재를 드리며, 그 실재는 다만 조금도 확대되거나 증가되지 않은 개인적인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가, 그리스도의 일부분들을 드린다. 나는 수년에 걸친 나의 사역을 통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들로 주님께 드린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나는 주님을 뵈 때 수천 명을 주님 자신의 여러 부분들로 그분께 드렸다고 답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주님께 드렸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어느 날 우리는 주님을 뵈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일에 대하여 그분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부분들을 그분께 드렸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그의 수고에 관해 말하면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지만, 이 수고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의한 수고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신약의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들 안으로 넣어 주고 분배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하여 받으실 만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느 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주님께 답변해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넣어 준다. 사람들을 방문하여 그리스

도를 그들 안으로 나누어 주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넣어 주고 그리스도를 분배하여 죄인들인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리스도의 여러 부분들인 그들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산출할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온 땅의 여러 지방에서 표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믿는 이들을 양육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줌

바울은 죄인들을 구원한 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믿는 이들을 계속해서 양육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먼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것을 하라고 명한다. 바울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그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양육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주었다.

만일 내가 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가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 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일부분 곧 영적인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가 갓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기이다. 나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며,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그를 먹여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믿는 이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제시한 후에 3장부터 11장까지에서 실지로 이 먹이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먹이는 사람이었던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청한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무려 열한 장에 걸친 교통을 마친 후에야, 성도들에게 12장에서 그들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고 그분을 섬기는 지체들이 되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에 의해 도움을 받고 온전하게 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본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직후에는 어린 아기와 같다.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그들은 생명 안에서 계속 성장하여, 영적으로 말해서, 십 대에 이르게 된다. 가정에서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많은 책임을 부여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 자녀가 조금 자라면 부모는 그들의 성장의 단계에 맞게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명할 수 있다. 자녀가 열세 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바울의 명령은 ‘초등학교’를 막 벗어난 수준이다. 초등학교 수준의 가르침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열세 살’ 정도의 학생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긴 가르침 이후에 아이들은 ‘중학교’에 입학한다. 바울은 그들이 회심했을 때, 그들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이제 ‘십 대’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그들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간청한다.

로마서 12장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후에, 몸의 생활이 실행되기 시작한다.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그리스도의 몸의 살아 있는 지체들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12장 이후의 구절들에서 우리는 자신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린 이들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이 된 것을 본다. 이 살아 있는 지체들은 신언이나 가르침 같은 그들의 은사에 따라 기능을 발휘한다(12:6-7).

로마서 12장 이전에는 몸의 생활의 실행이 없었다. 12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성도들은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온전하게 되기 시작한다. 온전하게 된 후에 성도들은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하는 이들, 목자 및 교사들과 같은 은사 있는 이들이 하는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엡 4:11-12). 비록 성도들이 그러한 특별한 은사들은 아닐지라도, 그들은 은사들이 하는 동일한 일을 할 것이다. 이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신약의 사역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하게 하는 은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된 성도들에 의해 직접 건축된다. 이 몸은 이 땅의 많은 지방들에서 지방 교회들로서 건축되고 표현된다.

모든 성도들을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림

믿는 이들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의 제사장 직분에 속한 바울의 복음의 일에는 셋째 단계가 있었다. 이 셋째 단계는 골로새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파하여 온갖 지혜로 각 사람에게 권면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며 분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가? 바울이 전파한 그리스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그는 영광의 소망이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바울은 놀라운 한 인격을 전파했다. 바울과 같은 일꾼이 없다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운행하실 수 없다.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들과 역경과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음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면도 받을 필요가 있다. 권면은 또한 훈계와 책망을 함축한다. 바울은 온갖 지혜로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쳤다. ‘온갖 지혜’는 바울이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법으로 권면하고 가르쳤음을 의미한다. 그는 각 사람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권면하고 가르쳤다. 바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 바울은 한 사람도 놓치기를 원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을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기를 갈망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다고 말했다(20절). 바울은 또한 삼 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성도들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고 말했다(31절). 바울은 성도들의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하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훈계했다. 나는 수년 동안 애너하임에 살면서 성도들의 집을 거의 방문하지 못했다. 나는 이것을 매우 부끄럽게 느낀다. 우리는 전통적인 관념 때문에 우리의 봉사를 쉬고 있었다. 바울은 대중 앞에서 가르쳤고 또한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가르쳤다. ‘이 집 저 집’이라는 것은 헬라이어 원문에서 ‘한 집 한 집’을 의미한다. 바울은 성도들을 얼굴을 맞대고 가르치며 훈계하고 권고했다. 바울은 이렇게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가르치고 성도 각 사람에게 훈계함으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하였다.

구약에서 장성한 제사장은 삼십 세 이상이어야 했다. 이십오 세의 사람은 다만 제사장 직분을 배우는 견습생이 될 수 있을 뿐이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 삼십 세(민 4:3, 35, 39, 43, 47)가 되셨을 때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눅 3:23). 우리는 다른 이들이 그리스

도 안에서 장성할 때까지 모든 지혜로 그들을 권고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곧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고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 장성하고 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살아 있는 지체, 곧 그리스도의 일부가 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모두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성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틀림없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일부분이며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구성 요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지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일부인가? 여러분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가 악하고 세상적인 일에 연루된다고 믿는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몸을 살아 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의 단계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1절은 완전히 성장한 단계가 아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8절처럼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도록 우리를 돌볼 줄 아는 제사장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를 돌볼 줄 알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도들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한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힘을 다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싸우고, 전투하고, 씨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으로 드리기란 쉽지 않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수고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운행에 따라 수고하였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운행하고 움직이실 수 있다. 여기서 능력은 역동적인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살아 계신 그분께서 매일, 밤낮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을 느끼고 또 깨달았는가?

몇몇 매우 가까운 이들은 나에게 나이를 상기시키면서 건강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와 가까운 그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염려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다. 이 내주하시는 분은 또한 항상 내 안에서 운행하신다. 나는 그분의 운행과 함께 움직일 때마다 힘을 얻는다. 나는 주님을 위해 말할수록 더 강해진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분에 따라 분투하며 수고해야 한다.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운행과 동역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을 다하셨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 편에서의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활력적인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몫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의무를 완성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고 쓸모없고 아무 일도 할 줄 모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꺼이 움직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북돋우는 힘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기꺼이 사업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본이 되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과 협력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어려움이 될 것이다.

신약에서 주님은 그분의 모든 선민, 곧 오늘날 믿는 이들이 모두 그분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 (벧전 2:5, 9, 계 1:6, 5:10). 모든 제사장은 매일 무엇인가를 제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게으를 수 없다. 모든 제사장은 매우 근면하게, 심지어 진취적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제단 위에서 제물의 달콤한 향기를 드리는 것이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달콤한 향기가 항상 그분께 올라가 그 향기를 흠향하실 수 있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의 활력적인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말한다. 신약의 제사장들의 주된 제물은 구원받은 죄인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확장되고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로서, 신약의 복음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구약에서 주된 제물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황소와 염소였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봉사는 항상 지속되어야 한다.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는 복음 전파를 우리의 매일의 생활과 행함의 일부가 되게 해야 한다. 제사장의 매일의 생활과 일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루 종일, 아침저녁으로 황소와 염소를 드렸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생활과 일의 예표이다. 신약의 제사장으로서는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룬 죄인들을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부분들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믿는 이로서 우리가 제사장이며,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항상 그가 구원시킨 죄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을 체험했는지 모르나, 골로새서 1장 28절에 있는 충분히 성장한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제사장 직분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 희생 제물은 세 단계, 곧 로마서 15장 16절의 구원과 로마서 12장 1절의 생명의 성장과 골로새서 1장 28절의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 이 모든 단계가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일이다.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함양하고 교회들을 세우는 일이 모두 복음의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는 신약 사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위해 이 책임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나는 수년 동안 많은 성도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매년 규칙적으로 집회에 참석한다. 그들은 주님께 많은 것을 드렸다. 이 책에서 나의 참된 부담은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실행은 수세기 동안 축적된 전통에 따른 것이다. 과거 우리의 실행은 일부는 성경과 일치하나 일부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교회생활에 관한 전통적이고 비성경적인 실행과 기독교의 봉사에 마취되어 있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하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재고해야 한다.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우리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복음 전파는 반드시 신약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음은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황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릴 때, 이 제물이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시고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사시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이들과 하나 되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비록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현재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서 부족이 있게 된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나는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다만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본 것, 새로운 이상, 새로운 빛을 제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에 관한 진리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나는 60년 이상 진리를 가르쳤지만, 여러분은 과거의 나의 저서에서 이 요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문제를 보았고, 이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전진, 45-57쪽)*